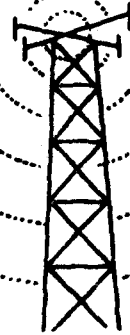


1 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계우회 연합회의 발족

지난 11월 20일 현대양계 회의실에서는 34명의 계우회대표들이 모여 계우회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단과 운영위원을 선출하였다.

초대회장에는 한국계우회(김종현회장) 부회장에는 윤경중(천호계우회장) 최창해(성심계우회장) 강희구(계명조합장) 운영위원으로는 김경웅(인천계우회장) 임병묵(영북계우회장) 김영식(광주계우회장) 기세중(김포계우회장) 고한구(홍성계우회장) 최진삼(동두천분회장) 강서호(신도계우회장) 허 돈(청천농장 회장)

승병선(영등포지구 대표) 감사에는 이재원(수원계우회장) 최명훈(한국계우회 난가조절위원) 감사에는 김종곤(현대양계사 대표) 씨가 선임되었다.

채란양계는 지난 15년간 몇차례의 기복은 있었으나 비교적 순탄하게 발전하였고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안정된 산업인것 같기도 보였으나 79년후반기에는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폭락하였고 계란분말(에그펄프)의 수입은 생산자를 자극하였었다.

이번 계우회 연합회는 채란업자만의 모임으로 주업무가 난가안정및 채란양계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탄생되어 채란업자의 또 하나의 대화의 창구역할을 다짐하고있다. 채란양계업은 그간 안정된 발전으로 각지역별로 계우회모임이 활발이 움직여왔으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여 계란시세등 정보교환과 침묵에 그쳐왔다. 일부계우회는 본회분회로 흡수되기도 하였었다.

전국에 계우회가 몇개나 되는지는 정확히 조사가 안되어 잘모르겠으나 3,000수 이상

양계농가가 3,548호로 1개계우회회원을 10~15명으로 보면 전국에 약 300여개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이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그 간 많은사람들이 전국에 산재한 이 계우회들을 조직하여 생산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법의 보호, 조직관리능력의 미숙과 계우회생리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었는데 이번에 34명으로 발족하였고 지난 12월14일에는 다시 모임도 갖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 견교환등이 있었다.

회원의 성분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운영이 어려운데 채란업자의 모임인 계우회대표들이 우리나라 채란양계업과 전체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가 주체가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인의 영양권장량

우리 축산인들은 일반적으로 NRC사양 표준을 비롯하여 외국의 가축사양표준은 줄줄 암기할정도로 잘 알고 있다.

직접 양축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사료공장의 전문가사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하고 감탄이 절로 나오게된다. 에너지수준이 어떻고 조단백질은 몇%로 하며 칼로리 단백질비를 논하고 스콧 박사 권장량은 물론 NRC표준의 개정발표와 거의 같은시간에 국내에서도 개정판이 발간되어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닭을 비롯한 가축의 영양권장량은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국민의 영양권장량은 어느수준이며 이를 위해서는 계란과 닭 고기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등한시 되고있다. 지난 12월 8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는(도서관) FAO(세계 식량농업기구(UN기구)한국협회와 한국영양학회가 주최하고 AARRO극동지역 사무소 후원으로 한국인의 영양권장량 개정안에 각분과별 발표가 다음과 같이 있었기에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緒 言 : 허 금교수(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가. 체 위 분 과 : 성낙응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나. 에너지분과 : 김동준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다. 단백질분과 : 최홍식박사(한국과학기술

연구소)

라. 무기질분과 : 김희숙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마. 비타민분과 : 이기열교수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부 록

가. 기초식품 : 이순애학장 (서울보건전문대학)

나. 식품분석표 : 유정열학장 (덕성여자대학)

서 언

허금교수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1962년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처음으로 책정하고 국민들의 건강유지와 체위향상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왔다. 그 후 사회생활의 變遷, 體位の 변동, 영양학지식의 趨移에 쫓아서 1967, 1974년 개정을 거듭하여 왔는데 5년으로 예정한 개정시한을 맞이하여

표 1. 한국인영양권장량 (1인 1일당) (1980년 3개정)

區 分	年 齡 (歲)	体 重 (kg)	身 長 (cm)	熱 量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레틴올(FE)	치 아 민 (mg)	리 보 플 라 (mg)	나 이 야 신 (mg)	성인, 중등활 } 남60kg 동예종사하는 } 여52kg		칼슘 (mg)	철 (mg)
										아스코르빈산 (mg)	비타민D (IU)*		
영아	0-3	5.5	59	120/kg	2.2/kg	1,000IU (300FE)	0.4/1,000 Kcal	0.6/1,000 Kcal	6.6/1,000 Kcal	35	400	10 / kg	10
	4-6	7.8	65	115/kg	"	"	"	"	(13mg/日 보다적지않 게)	"	"	"	"
	7-9	9	70	110/kg	2 / kg	"	"	"	"	"	"	"	"
	10-12	10	74	105/kg	"	"	"	"	"	"	"	"	"
小 兒	1-3	12	83	1,200	35-75	2,000IU (600FE)	"	"	"	"	"	"	"
	4-6	19	105	1,700	"	"	"	"	"	"	"	"	"
	7-9	26	127	2,000	"	"	"	"	"	"	"	"	"
	10-12	36	144	2,600	"	"	"	"	"	"	"	"	"
남 자	13-15	51	161	2,900	90	"	"	"	"	"	"	"	"
	16-19	59	168	2,900	85	"	"	"	"	"	"	"	"
	20-49	60	168	2,700	80	"	"	"	"	55	"	600	"
	50-64	60	168	2,400	80	"	"	"	"	"	"	"	"
	65+	60	168	2,200	80	"	"	"	"	"	"	"	"
	70+	60	168	2,000	80	"	"	"	"	"	"	"	"
여 자	10-12	37	145	2,300	35-75	"	"	"	"	"	"	"	18
	13-15	48	154	2,400	75	"	"	"	"	"	"	"	"
	16-19	52	156	2,300	75	"	"	"	"	"	"	"	"
	20-49	52	156	2,000	70	"	"	"	"	50	"	600	"
	50-64	52	156	1,800	80	"	"	"	"	"	"	"	10
	65+	52	156	1,600	65	"	"	"	"	"	"	"	"
임 부	전반기			+150	+30	2,400IU (36 FE)	"	"	+2	65	"	"	18
	후반기			+350		3,500IU (1,050FE)	"	"	+4	85	"	"	18
수유기				+800	+25								



새로운 수정을 함에 있어서 改正試案을 발표하여 전문가 諸賢들의 批評을 받으려 한다.

체위기준에 있어서는 전 제 2 개정이 이루어진 1974년 이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체위가 尙上하여 왔으며 에너지 권장량은 세계적인 에너지 소요량 감축요청에 副應하여 안전율을 廢棄하고 기온에 따르는 수정과 妊婦 및 授乳婦의 권장량을 일부 개정하였다.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등의 권장량은 최신知見에 의하여 수정을 가하였으나 年令別基準値를 설정하느니 보다는 概括性인 基準을 提示하는 便이 査定원리를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어서 단백질에서는 영아 6개월까지는 2.2g/kg, 7-12개월 2/gkg, 소아 1일 35~75g, 13~15세, 남 90g, 여 75g이며, 무기질중 칼슘은 남, 여 공히 60mg, 鐵은 성인 남자와 폐경기 이후 여자 1일 10mg, 可妊期の 여자와 妊婦, 授乳婦는 18mg을 권장하

여, 비타민에 있어서는 비타민A 영아 1일 1,000IU, 또는 레틴올 300RE, 성인 2,000IU (600RE)로 하고 妊婦後半期 20%, 授乳婦는 75%를 가산한다.

비타민D는 전년령, 임부, 수유를 통하여 400IU, 치아민은 0.4mg/1,000kcal, 리보플라민은 0.6mg/1,000kcal, 나이신은 0.4mg/1,000kcal, 리보플라민은 0.6mg/1,000kcal, 나이신은 6.6mg/1,000kcal, 아스코르빈산은 영아 35mg, 성인 남 55mg, 여 50mg, 임부 65mg, 임부 65mg, 수유부는 85mg를 1일 권장량으로 한다.

기초식품과 주요식품 영양가표는 담당자 諸位의 비상한 노력에 의하여 자료가 훨씬 늘어서 영양권장량과는 별도로 간행될 것이다.

불확실성의 80년도 양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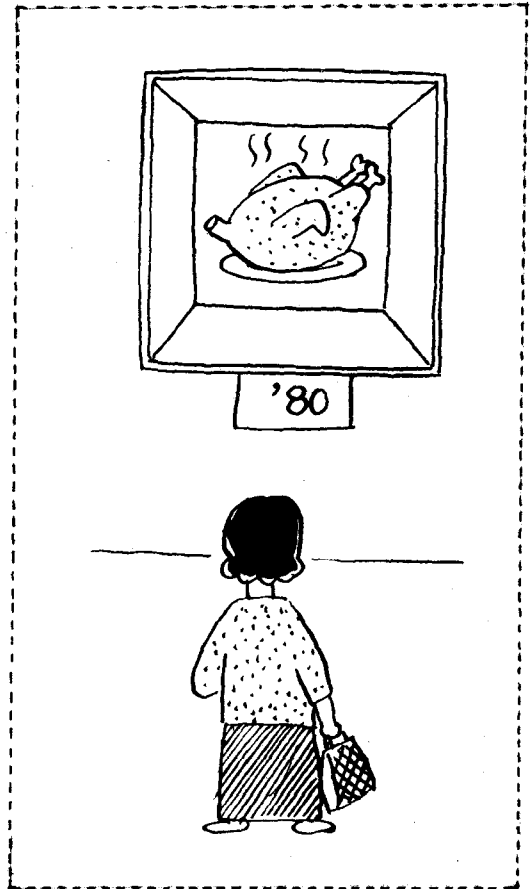
축산업계에 가장 어려웠던 79년이 끝나고 대망의 80년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를 모두가 79년의 어려운 불황을 겪으면서 80년에는 좋아지겠지하는 희망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희망은 79년 10월 13만수의 육용종계가 입식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월간양계 12월호 172p 참조) 이는 78년 동기대비 330%의 입식으로 80년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가를 알수있다.

그러나 우리가 80년대를 맞으며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80년도의 일반경

기가 대단히 불투명한 점이다.

경제기획원(EPB)은 80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저율성장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세계석유수출국기구(OPEC)는 80년 1/4분기 원유가를 자유회함으로써 고원유가 시대에 돌입하였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 경제대국들도 경기침체를 우려하고들 있다. 로마클럽이나 OECD등도 80년 세계경제는 극히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마이너스 성장 또는 제로성장을 할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영란은행도 세계경제불황은 예상보다 늦게 닥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덜심각해질것 같지는 않으며 80년도 세계무역량은 0.3% 감소할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제전문연구기관중의 하나인 한국개발연구원도(KDI) 80년도 국내경기가 극히 침체할것으로 보고하였으며, 80년도 경제운영지침을 경제성장을 1%로 할경우 물가상승율 15% 실업율 6%와 경제성장을 4%로 물가상승율 20~30% 실업율 4.9%의 2가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다가 79년 8%의 저성장 진축정책에서 우리의 괴로움은 말할수 없었는데 경제성장을 1%나 또는 4%의 경우와 물가의 20~30%상승은(과거는 물가상승율 10%정도) 실업율의 증가와 함께 과연 얼마나 축산물이 소비될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한다. 특히 축산물의 주소비층인 중산층의경우 물가상승율에도 불구하고 5~10% 정도로 봉급인상을 억제할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비자의 실질소득감소는 더욱 축산물 소비가 위축될것으로 추측하는것을 어렵지않게 하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카터미국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5~10년 이내에 미국의 농업은 현재 OPEC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것처럼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게 될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식량의 무기화시대도 5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인건비가 오르고 모든 생산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소비는 둔화되는데 따른 양계업계의 해야할일이 무엇인가를 80년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규모확장 위주의 양계산업을 재고할때가 되었다. 생산조절 생산비절감 유통능률 제고 소비확대와 이러한 일을 할수있는 기구강화와 기금마련등이 이번, 1월중에 개최되는 각분과별 회원회의에서(부화 채란 육계업계)충분이 논의되어 양계산업이 안정되게 발전할수있는 새로운 진로를 설계하여야 겠다. 전체양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순리대로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80년대의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